

상표에도 “색깔 바람” 분다

— “색깔” 관련 상표출원 크게 늘어 —

최근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컬러푸드, 색채요법 등 색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표에도 색깔명이 들어가거나 상표자체에 색깔을 입히는 색채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상표에 색깔명이 들어가 있는 상표출원이 1999년 967건에서 2004년 1,411건('99년 대비 46% 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색깔별로 살펴보면 환경친화적이며, 조화와 균형의 색으로 알려져 있는 초록(Green)과 차분함과 건강함을 상징하는 푸른색(Blue)이 전체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선호하는 색깔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순수함과 깨끗함, 청결한 이미지의 하얀색(White)이 15%, 정열의 색인 붉은색(Red)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 자체에 색깔이 가미되어 있는 색채상표도 2002년 6,138건에서 2003년 7,598건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데 이어 2004년에도 8,110건이 출원되었으며, 주로 과자, 가공곡물, 음료 등 식품분야(23%)에 많이 출원되었다.

이처럼 색깔관련 상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색깔명이 들어가거나 색채를 가미하는 경우 상표자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판매 상품의 특성을 잘 나타냄으로써 소비자들의 상품구매력을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색깔명이 들어간 상표

자체만으로는 상품을 설명하는 상표가 되기 쉬워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우며,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또한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과 함께 상표를 출원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도별 색깔명 상표출원 동향

연도	초록	파란	초록	분홍	노랑	빨간	하얀	기타
1999	103	37	275	77	120	195	160	967
2000	79	26	366	79	104	259	190	1,103
2001	118	19	371	63	109	257	196	1,133
2002	103	16	477	49	169	263	196	1,273
2003	204	20	480	54	123	242	208	1,331
2004	97	24	569	78	162	327	154	1,411
계	704	142	2,538	400	787	1,543	1,104	7,218
비율(%)	9.7	2.0	35.2	5.5	10.9	21.4	15.3	100

* 서비스표 제외

주요 상품별 색채상표 출원현황

연도	식품	음식	의류	가전	장유	가공	식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기타
1999	456	211	939	1,035	568	379	361	832	1,275	21	6,077
2000	510	209	1,429	812	552	424	430	882	1,317	30	6,595
2001	475	288	1,328	801	677	431	471	624	1,201	37	6,333
2002	650	202	1,218	801	506	383	389	494	1,455	40	6,138
2003	713	253	1,505	947	661	468	475	599	1,943	34	7,598
2004	724	281	1,542	1,002	637	466	451	633	2,335	39	8,110
계	3,528	1,444	7,961	5,398	3,601	2,551	2,577	4,064	9,526	201	40,851
비율(%)	8.6	3.5	19.5	13.2	8.8	6.3	6.3	10.0	23.3	0.5	100

* 서비스표 제외

휘어진 DVD도 재생시키는 틸트 관련 기술, 특허 출원 지속증가

CD나 DVD 등 광디스크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재생해 줄 수 있는 틸트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디스크는 디스크 면에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기록하고, 재생을 할 때도 역시 광 빔을 주사하여 반사되어 나오는 신호를 이용하며, 이때 광빔은 디스크면에 정확하게 수직 입사되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광디스크는 계속되는 기술개발의 결과 저장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저장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기록되는 트랙의 폭을 점점 더 좁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디스크가 약간만 변형되더라도 입사각이 틀어지는 오류가 발생된다.

따라서 고밀도 디스크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틸트 관련 기술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디스크 틸트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출원되고 있으며, 2001년 특허출원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일정건수 이상의 특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9년:25건 → '02년:54건)

이는 최근 대용량 디스크의 개발과 더불어 재기록 가능 DVD 드라이브등이 개발되어 대중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틸트 관련 특허는 과거에는 센서 및 구동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추세를 감안하여 비용절감, 휴대 및 소형화 등에 유리하도록 성능향상과 더불어 부품 수를 감축하거나, 부품을 소형화하는 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